

노인학대 현황과 정책과제

-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 경험률은 13.8%이며, 농어촌·여자·무배우자 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 경험률이 높음

- 노인학대의 약 1/3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학대피해노인의 대부분이 우울(75.9%),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73.7%), 불안(51.6%), 신체화 증후군(56.4%) 등 다양한 학대 후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조기발견·적절한 개입과 보호·사후관리의 연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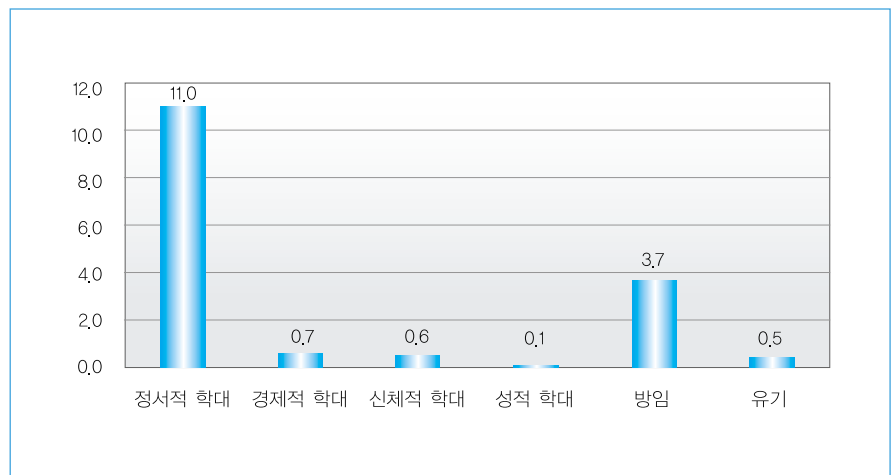
1. 노인의 학대 경험 실태¹⁾

□ 학대 종류별 학대 경험률

-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정의에 포함되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의 경험을 한 노인의 비율은 13.8%임
- 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 경제적 학대를 기준으로 한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노인학대 경험률은 5.1%임
- 학대 종류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11.0%, 경제적 학대 0.7%, 신체적 학대 0.6%, 성적 학대 0.1%, 방임 3.7%, 유기 0.5%임

[그림 1] 종류별 노인학대 경험률

(단위: %)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된 「한국형 노인학대 선별도구」를 기초로 2009년 11~12월 기간중 노인 6,745명에 대한 전국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노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의 정의에 포함되는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에 관한 28개 항목에 기초하여 통계가 산출되었음. 자세한 선별도구 개발 과정과 개별 지표는 '정경희 외,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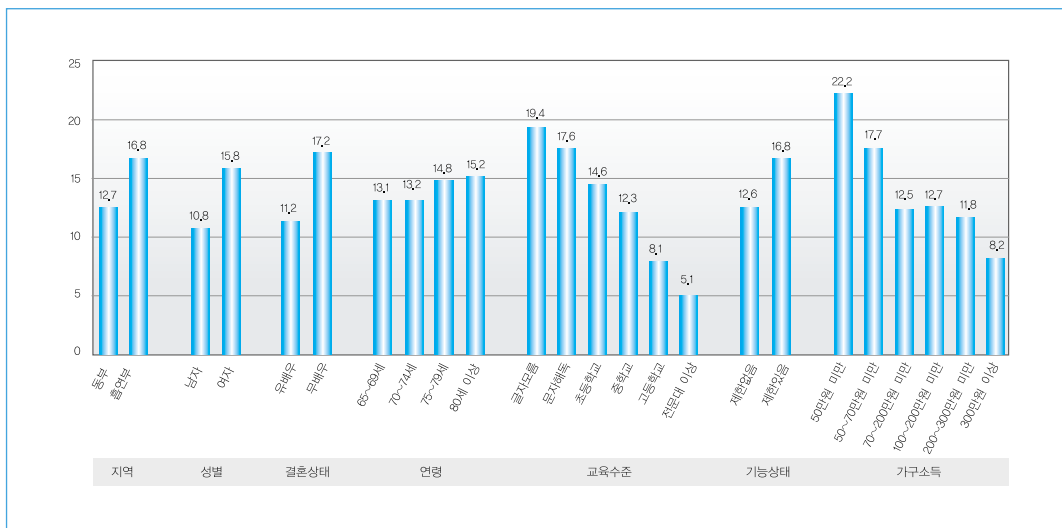
□ 제특성별 노인학대 경험실태

○노인학대 경험률은 도시지역 노인(12.7%)에 비하여 읍·면부 거주 노인(16.8%)에게서, 남자노인(10.8%)에 비하여 여자노인(15.8%)에게서, 연령이 높을수록(75세 미만: 약 13%, 75세 이상 15% 내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경험률이 높으며, 가능상태가 나쁜 경우 노인학대 경험률이 높은 등 노인의 경제·신체적 상황이 나쁜 경우 노인학대 경험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 경제적 빈곤 및 신체적 의존성으로 인한 부양 부담 등이 노인학대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며, 농어촌지역, 여자노인 등이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함축함

[그림 2] 노인의 제특성별 노인학대 경험률

(단위: %)



2. 노인학대의 제 양상

□ 노인학대의 지속기간

○노인학대의 31.2%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도 24.9%에 달하고 있으며, 일회성인 경우는 2.5%에 불과하여 노인학대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정서적 학대는 다른 학대에 비해 10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많아 34.7%이며, 5~10년 미만이 24.0%임
- 신체적 학대는 10년 이상 지속된 비율이 40.5%로 타 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의 비율 또한 21.6%로 높음
- 반면 경제적 학대는 일회성이 20.5%로 그 비율이 다른 학대에 비하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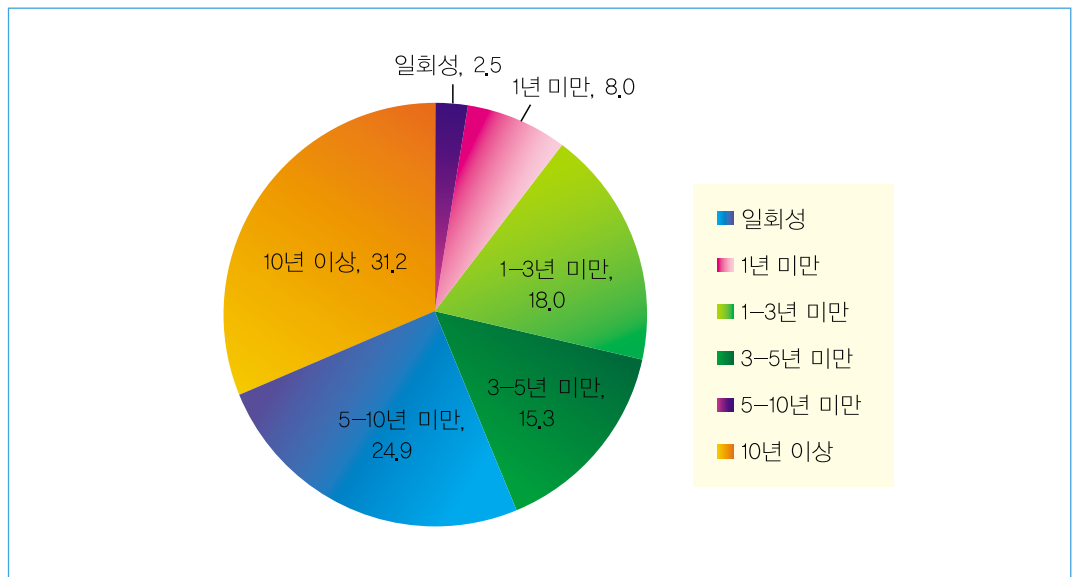
□ 노인학대의 강도 변화

○노인학대의 5.1%는 시간 경과에 따라 그 강도가 매우 강해졌으며, 20.6%는 강해지는 등 노인학대의 약 1/4은 초기 발생 이후 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약해졌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함

- 신체적 학대는 타 유형에 비해 최초 발생 이후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임
- 강해졌다 응답은 신체적 학대 38.9%, 경제적 학대 34.3%, 방임 21.1% 등임

[그림 3] 노인학대 지속기간

(단위: %)



□ 학대피해노인의 제증상 경험

○학대피해노인의 75.9%는 우울을, 73.7%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을, 56.4%는 신체화 증후군을, 51.6%는 불안을 경험하는 등 학대경험 이후 다양한 학대 후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

- 신체적 학대를 경험 한 노인은 타 학대유형에 비해 불안과 우울,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렇게 노인학대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 및 강화되며, 다양한 부정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체 및 정서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짐

[표 1] 학대종류별 경험 증상

(단위: %)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	불안	우울	대인기피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	죽고싶다는 생각	행위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	신체화 증후군	탈진/ 영양실조
전체	73.7	51.6	75.9	21.3	5.3	38.4	6.7	56.4	3.5
학대유형									
정서	74.6	54.4	77.4	20.7	6.5	39.8	7.8	60.2	3.2
경제	74.5	59.6	66.0	27.7	12.8	42.6	18.2	70.2	12.8
신체	75.7	81.1	86.5	36.8	43.2	52.6	28.9	81.1	7.9
성	100.0	50.0	75.0	50.0	40.0	75.0	50.0	75.0	25.0
방임	77.5	53.6	81.7	28.2	2.0	46.4	4.8	51.8	4.8
유기	73.5	58.8	76.5	35.3	0.0	50.0	9.1	48.5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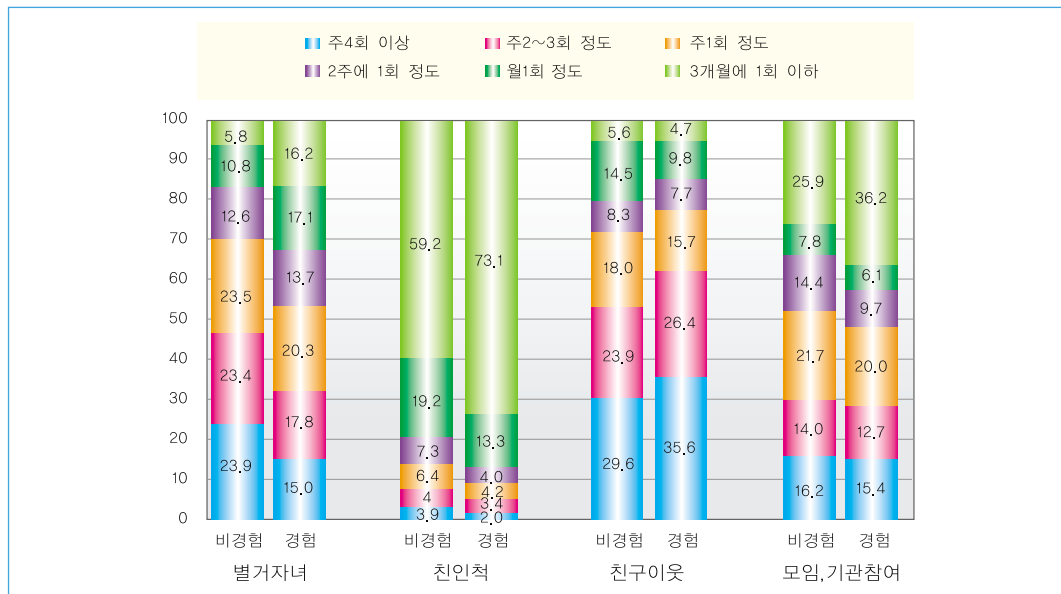
□ 학대 경험 유무별 사회적 관계 및 자존감

○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반적으로 자녀, 친척, 친구·이웃, 모임·기관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연계망이 취약함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별거자녀와 3개월에 1회 이하의 접촉을 하고 있는 비율이 16.2%로 비경험자의 5.8%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규모임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친척과 3개월에 1회 이하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73.1%로 비경험자의 59.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친한 이웃·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비경험 노인의 42.9%보다 높음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36.2%가 모임·기관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비경험자의 25.9%에 비하여 약 10%포인트 높은 것임

[그림 4] 학대 경험 여부별 사회적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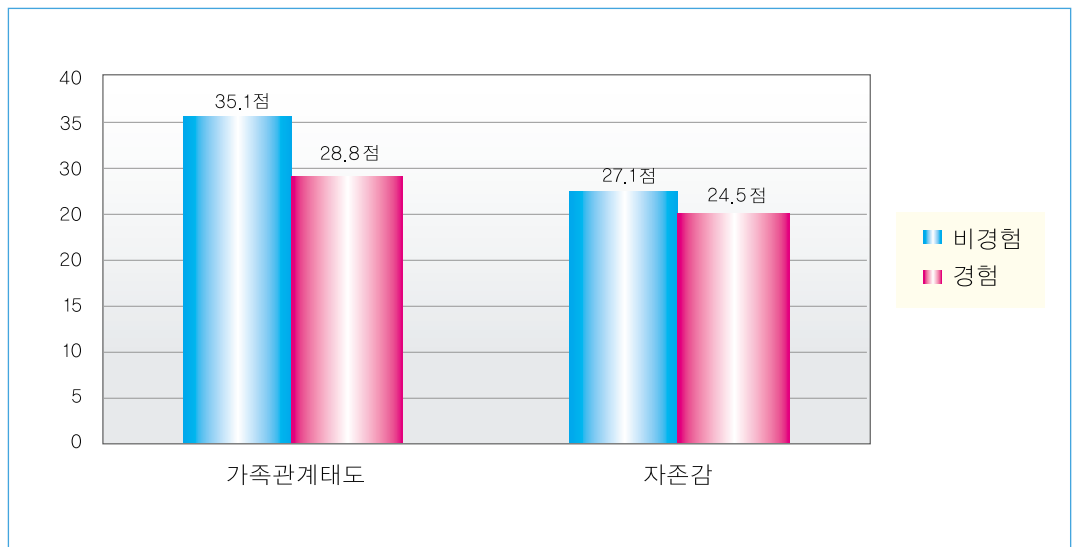


□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가족관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자존감의 수준도 낮음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가족관계 점수(50점 만점)가 28.8점으로 비경험자의 35.1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자존감 점수(40점 만점)가 24.5점으로 비경험자의 27.1점에 비하여 낮음

[그림 5] 학대 경험 여부별 가족관계 및 자존감



□ 학대피해노인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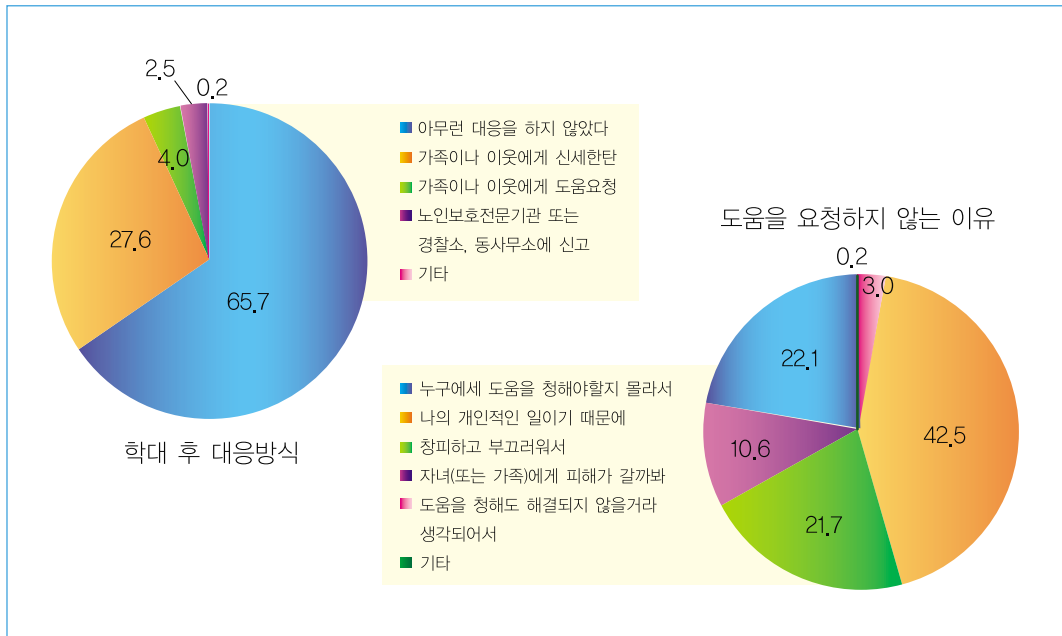
○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주변사람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등 적극적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65.7%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신세한탄이 27.6%,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 요청이 4.0%,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한 비율은 2.5%임

· 정서적 학대의 경우 신고비율이 0.8%로 매우 낮은 반면, 신체적 학대 11.1%, 경제적 학대는 9.1%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받고 난 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가 3.0%, 나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42.5%,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21.7%,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서가 10.6%, 도움을 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서가 22.1%임

[그림 6] 학대피해노인의 대응방식 및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학대경험 노인조차 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 사회문제로서의 개입과 전문적인 관리체계의 발전에 있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학대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태도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조기발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학대피해노인의 다수가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학대를 당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어,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3. 학대 행위자의 특성

□ 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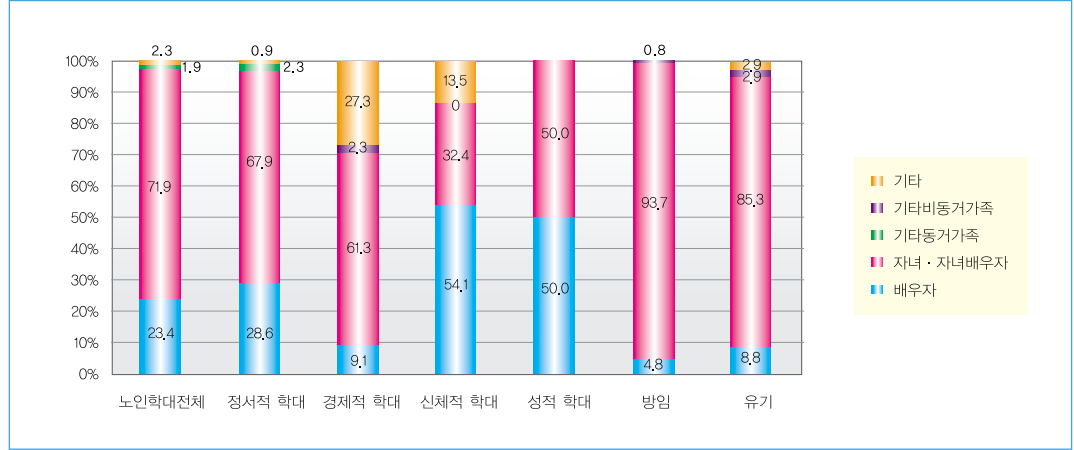
○ 노인학대 경 행위자는 배우자가 23.4%,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71.9%임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거자녀가 14.8%, 동거자녀의 배우자가 7.7%, 비동거자녀가 35.8%, 비동거자녀배우자가 13.6%로 비동거자녀에 의한 학대가 많음
- 학대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에서는 '배우자'가, 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및 유기에서는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주 학대행위자임

□ 학대행위자의 제특성

○ 학대행위자의 56.3%가 남자이며, 40대 이상 82.0%, 중학교 졸업 이하 78.4%, 보통 이하의 생활수준 83.8%

[그림 7] 학대종류별 학대행위자



4.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

□ 노인 전체의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인식

○노인은 약 절반 정도가 빈곤, 채매, 노인의 잘못된 행동과 같이 노인의 개인적 원인을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

- 노인의 50.1%가 노인 개인적인 원인을 20.3%가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원인을 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피해자와 행위자의 갈등관계라는 응답은 15.9%,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라는 응답도 11.0%임

□ 학대피해노인의 피학대 원인에 대한 인식

○본인이 학대받은 이유로 실직·경제적 어려움·건강상 문제와 같은 행위자의 나쁜상황(41.2%)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가족내 갈등(11.5%), 노인의 낮은 경제상태(17.0%)나 건강상태(9.2%) 등을 언급

□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과의 비교

- 피해노인과 학대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에서 노인학대의 원인을 찾는 노인에 비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양자간의 관계상 갈등과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미비 등의 환경적 변인을 보다 중요한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일반국민의 43.1%가 피해노인과 행위자의 갈등관계를 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26.6%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²⁾
- 전문가들은 69.0%가 피해노인과 행위자의 갈등관계를, 10.9%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부족을 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³⁾

2) 2,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임

3) 175명의 전문가에 대한 우편조사결과임

5. 정책과제

□ 노인학대에 대한 연속적·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강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상별 맞춤형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방안 마련
 - 지역사회 상시 관찰체계 구축: 지역실정을 잘 아는 단체의 관심 제고를 통한 상시 관찰체계 구축
 - 노인학대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보호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노인보호기관 확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기준 상향 조정
 -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운영: 학대피해노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 보호시설 개설
- 적절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적극적 사례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 제도적 기반 마련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노인복지관, 119,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학대 대응력 제고
- 정책적 개입의 법적 기반 공고화: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정경희(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2-064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